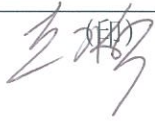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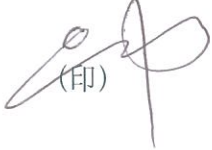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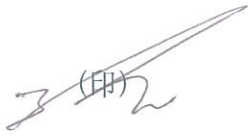



2015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5. 1. 31(토) 13:00		
회의장소	사이버관 601호		
회의명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조기석 위원장, 김수진, 원종민(정송조위원 대리참석) 윤이식, 장진혁, 오유리, 김별님 위원 (참석인원 총 7인) 최호준 간사		
불참위원			
공람확인	위 원 장	조 기 석	
	위 원	김 수 진	
	위 원	정 송 조	
	위 원	윤 이 식	
	위 원	장 진 혁	
	위 원	오 유 리	
	위 원	김 별 님	

● 회의내용

1) : 회의 기초 발언

- 조기석 위원장 기초발언 : 이번 2015학년도 예산은 긴축재정과, 학생만족도 향상을 위한 투자를 기초로 편성했으며, 총예산은 160억으로 각 항목을 이번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

2) 2015학년도 예산(안)

- 정송조 위원이 2014학년도 예산과 2015학년도 예산안을 비교하여 설명하다. 등록금이 학점 당 8만원으로 적정한지 검토해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학교 측 구성원이 노력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비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교내장학금 으로 전년도 19억에 비해 32억으로 13억이 증가하였다.
- 조기석 위원장이 조교 및 임시직 인건비 삭감 등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다.
- 정송조 위원이 지난번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 나왔던 요청을 반영하여 이사회 심의 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하다.
- 윤이식 위원이 시설관리비 항목에 대해 질문하다.
- 정송조 위원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답하다.
- 장진혁 위원이 예비비가 1억 증가한 것에 대해 질문하다.
- 조기석 위원장이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최소 사업금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결과라고 답하다.
- 윤이식 위원이 인건비가 동결되었는지 질문하다.
- 정송조 위원이 인건비의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증가할 경우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 윤이식 위원이 신,편입 입학 추세에 대해 문의하다.
- 김수진 위원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대답하다.
- 조기석 위원장이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사이버대학의 입시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다.
- 정송조 위원이 입학생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등록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 학생복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다. 올해 학교가 여러 가지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윤이식 위원이 사이버대학 중 단과별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다.
- 정송조 위원이 세종사이버가 시행했었으나,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 홍보비가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으나, 사이버대학과는 맞지 않아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
- 장진혁 위원이 학부가 늘었는데 전체 학생 수는 왜 감소했는지, 학부가 늘어나면 교원인건비등 비용 또한 증가할 텐데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다.
- 정송조 위원이 각 학부가 전반적으로 입학생이 감소해서 전체 학생 수에 영향을 미쳤고, 신설학부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편제정원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대답하다.
- 윤이식 위원이 창과준비 연구비에 대해 문의하다.
- 정송조 위원에 올해는 창과 계획이 없어서 2015학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사업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이상으로 등록금심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다. 끝.